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의 오픈엑세스를 제언

A Study on the Open Access for Journals in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손천익,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thscjs@hanmail.net
Cheonik Son, Graduate Schoo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Hansung University

학술정보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고 적합한 용도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복제, 검색, 인쇄, 링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오픈엑세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술기관은 연구결과물의 노출과 인용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원문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부설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중 KCI에 등재되어있는 학술지의 원문제공서비스 유형과 현황, 그리고 게재 논문의 저작권 소유주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서 론

학술커뮤니케이션 순환과정에서 대학의 연구기관은 학술정보를 생산하고 생성된 학술정보를 출판하고 배포한다. 동시에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학술정보를 수집, 분류 및 저장한 후에 검색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일련의 순환과정에서 학술정보의 생산과 이용이라는 두가지 역할을 모두 담당한다.

대학부설연구소는 학술정보의 생산자중 하나이며, 학술지 간행과정에서 게재논문에 대한 교내외 연구비 지원과 출판비 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과 연구소 운영비 또는 연구소 근무직원과 조교의 상주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학술지를 간행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에서는 부설연구소에서 생산된 학술지를 상용 DB업체와 협약을 통해 이용하고 업체에서 실행하는 분류 및 재가공, 검색서비스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후 이용하여 학술정보의 생산과 생산된 정보의 이용 모두에 대학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환경이다.

한편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2014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내용을 보면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항목으로 7점이 배정되었으며, 수록된 논문이 온라인상에서 유·무상으로 제공되는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지, 외부기관을 통해 제공되는지에 따라 배점이 다르다. 무료공개와 해당 기관에 더 높은 배점을 할당하므로 발행기관 홈페이지에 원문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술정보에 대하여 무료로 접근할 수 있고 적합한 용도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복제, 검색, 인쇄, 링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오픈엑세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연구분야에 따라서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정경희 2011).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오픈엑세스 출판 현황 파악, 오픈엑세스 논문에 대한 질적 평가, 연구자의 인식조사, 출판모델 제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오픈엑세스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는 대학의 직·간접적인 지원으로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비해 재정적으로 나은 환경에 있지만 상용DB업체를 통한 서비스는 학회와 크게 차이하지 않았으며, 특정 대학 대상이지만 대학부설연구소의 이공계 학술논문의 경우 대학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종 연구성과물인 학술논문을 오픈액세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신은자 2010).

대학은 학술정보의 생산자인 동시에 이용자이며, 대학부설연구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학술정보가 정보의 공유와 연구의 확산을 추구한다고 할 때, 오픈엑세스는 현재시점에서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이며, 대학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부설연구소는 학회에 비해 오픈엑세스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오픈엑세스에 관한 연구가 학회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가 어떠한 유형으로 원문제공서비스를 하고 있고, 동시에 상용DB업체를 통한 원문서비스 현황 살펴 대학부설연구소의 오픈엑세스 환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오픈엑세스 시행에 있어 전제조건이 되는 학술결과물의 저작권 소유 주체와 학문분야별 원문제공서비스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KCI에 등재된 대학부설연구소 등재지 296종을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였으며, 회원가입이 필요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문제공서비스를 조사하였다.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최근 3년(2011년~2013년)의 원문이 서비스 되는지에 따라 원문제공서비스 유무를 판단하였으며, 일부 또는 서지사항만을 공개할 경우는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홈페이지 접속시 파일형태와 서지사항은 공개되나 연회비 납부, 대학소속 구성원 등의 특정한 조건이 충족된 회원에게만 서비스하는 경우, '승인회원'으로 분류하여 원문제공서비스를 현황을 파악하였다.

상용DB업체를 통한 원문제공서비스 현황은 KISS, DBpia, eArticle, 교보스콜라, 뉴논문과 몇몇 외국어 학술지가 이용하는 해외 상용DB업체를 살펴보았다.

이외에 현재 정부기관의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KCI를 통한 원문제공서비스 현황과 대학내 리포지터리(Repository)사용을 조사하였다.

또한 원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규정과 저작권 귀속(이용)동의서에서 저작권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였다. 저작권 소유주체 및 기관이용 동의 명시여부는 홈페이지 원문제공서비스와 상용DB업체를 통한 원문서비스의 전제조건이며 추후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정착을 위해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일부 등재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픈엑세스의 라이선스 표기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2. 대학부설연구소의 원문제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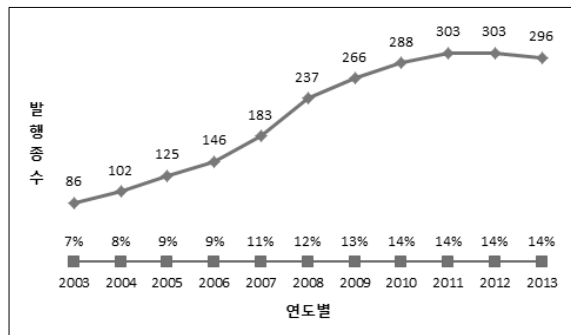
2.1 대학부설연구소 등재지 현황

본 연구는 KCI 등재지 2,093종(2014년 7월 22일 기준) 중 대학부설연구소 등재지 296종을 대상으로 발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현재 등재지 대부분은 학회가 차지하고 있으며(86%), 대학부설연구소 등재지는 학회에 비해 적은 종수이나, 10년간의 전체 등재지 변화추이를 보면 2003년 이후 점차 비중이 늘어나 2010년에는 2003년에 비해 종수로는 3배, 비율로는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로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¹⁾

<표 1> 최근 10년간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 등재지 종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학회	1,101	1,222	1,340	1,432	1,558	1,687	1,745	1,815	1,856	1,846	1,811
대학부설 연구소	86	102	125	146	183	237	266	288	303	303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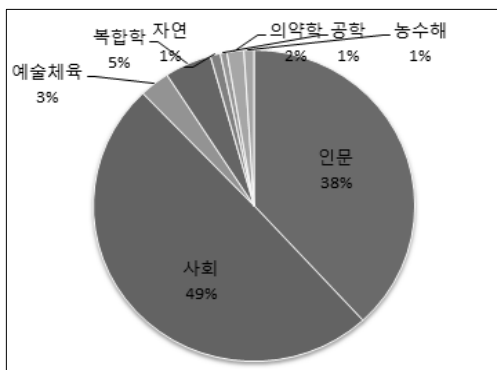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대학부설연구소 등재지 종수 변화

<표 2> 분야별 대학부설연구소 등재지 종수

인문	사회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	계
113	147	9	14	3	2	5	3	296

분야별로 보면 인문과 사회분야가 전체의 8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학문분야의 비중이 낮아 분야별 조사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2> 분야별 등재지 비중

2.2 유형별 원문제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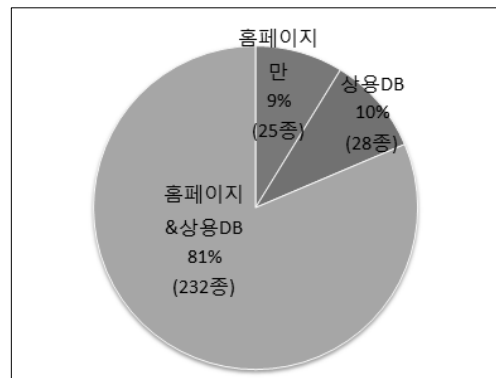
대학부설연구소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원문 제공서비스 형태를 ‘홈페이지만’, ‘상용DB업체’, ‘홈페이지와 상용DB업체’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대상 등재지 296종의 각 홈페이지를 접속하였으나 홈페이지 개편, 웹호스팅 만료, 기타 문제로 이용에 문제가 있는 11종의 홈페이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1종을 제외한 대학부설연구소 등재지 285종의 원문제공서비스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원문제공서비스 유형

홈페이지만	상용DB업체	홈페이지&상용DB	계
25	28	232	285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는 90%에 달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원문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홈페이지와 상용DB업체를 통한 원문서비스를 동시에 하고 있으며, 상용DB업체에서만 서비스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상용DB사용이 91%가 된다.



<그림 3> 원문제공서비스 현황

1) KCI 정보이용신청으로 제공 받은 자료임.

“본 연구성과 또는 결과물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구축하여 제공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DB 정보를 이용하였다”

2.3 분야별 원문제공서비스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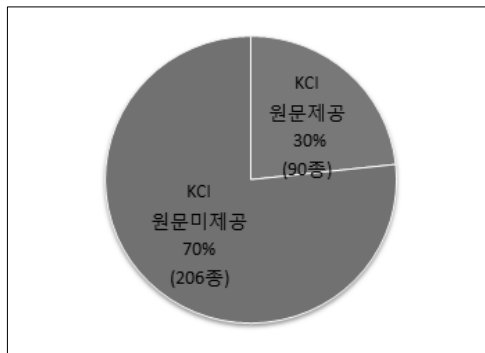
대학부설연구소 등재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문과 사회분야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제공서비스를 주로 하며, 회원가입 없이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원문제공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회원접속이 필요한 경우보다 많았다. 이는 학회의 경우 연회비를 받는 경우가 많으나 대학부설연구소는 대학의 지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4> 분야별 원문제공서비스 유형

구분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합계
홈페이지만	6	13	0	2	1	2	0	1	25
상용DB	10	15	1	2	0	0	0	0	28
홈페이지&상용DB	93	116	7	8	2	0	4	2	232
합계	109	144	8	12	3	2	4	3	285

2.4 KCI를 통한 원문서비스와 리포지터리

2012년 말부터 KCI에서는 등록된 기관에 저작권 양도 확인서 또는 저작권 양도가 명시된 규정을 신청서와 함께 접수받아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오픈액세스 추진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KCI원문서비스 현황

대학의 기관 리포지터리의 경우 서울대, 아

주대, 인하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의 리포지터리에서 주로 의약과 이공계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이중 서울대 리포지터리 S-Space에서 대학부설연구소 등재지 15종에 대해 원문을 서비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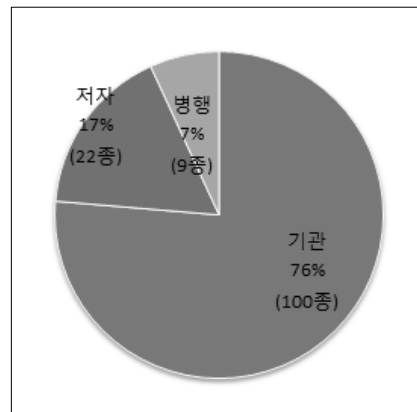
3. 대학부설연구소 저작권 귀속 현황

3.1 저작권 귀속와 소유주체

학술결과물도 저작권이 있으므로, 원문제공서비스 등의 학술정보의 공유와 정보의 전송, 상업적인 이용에서 저작권 소유주체와 이용범위를 명시 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 소유주체를 기관, 저자, 기관과 저자가 공유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대학부설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규정(투고, 편집, 심사, 간행)이나 저작권귀속(이용)동의서를 통하여 저작권을 명시한 131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림 5> 저작권 소유주체

조사결과 소유주체별로는 기관에 저작권을 귀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문분야별 특징은 사회과학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저작

권 규정 표기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법학분야 등재지의 저작권 규정 표기가 많았던 경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분야별 저작권 귀속 유형

구분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합계	
저작권 소유 주체	기관	36	48	1	7	2	1	3	2	100
	저자	1	18	1	0	0	0	1	1	22
	병행	3	6	0	0	0	0		0	9
	소계	40	72	2	7	2	1	4	3	131

3.2 오픈엑세스 라이선스

8종의 등재지가 오픈엑세스 라이선스를 표기하고 있다. 이중 6종은 사회과학분야이고, 8종 중 5종은 위탁된 외국DB업체에서의 서비스정책이며, 2종은 연구소 홈페이지 이외에 별도로 구축한 영문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1종은 한글논문이며 원문서비스하고 있는 각 논문의 본문 첫페이지에 CCL로 표기하고 있다.

<표 6> 분야별 OA표기 및 저작권귀속(이용)동의서사용

구분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합계
OA표기	0	6	0	0	0	0	1	1	8
저작권귀속(이용)동의서 사용	4	19	0	1	1	1	3	1	30

4. 결론 및 제언

2003년 이후 대학부설연구소의 등재지 비중이 증가하였고, 원문공개서비스에서 대학부설연구소 홈페이지와 더불어 상용DB업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연구소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부설연구소는 대학의 지원으로 인해 학

회에 비해 학술지 발행에 있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DB업체를 통한 위탁서비스가 많은 것은 수익보다는 논문의 노출과 인용의 확대를 위하여 여러 채널을 통한 원문공개서비스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상업DB업체에 의존하는 것은 추후 업체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해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술정보의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연구자인 경우 연구자료 수집에 있어서의 비용지출이 연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의 이용과 연구 확산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접근에 있어 이용자의 부담이 없어야 하다.

둘째, KCI에서 진행중인 원문제공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이용자는 KCI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 및 이용 가능도록 한다.

셋째, 현재 학위 논문을 주로 관리하는 각 대학의 dCollection에서 부설연구소 학술지의 DB를 탑재하고 이를 대학 간 조회 및 서비스가 지원 되도록 제안한다.

넷째, 연구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학술정보가 널리 전파되고 인용되는 것이 사회기여와 연구자의 명예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관 홈페이지 또는 게재논문에 오픈엑세스 라이선스를 표기한다.

다섯째, 게재논문의 저작권에 있어서는 기관에 저작권을 귀속하거나,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더라도 기관이 저작권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학술지 관련 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 발행인 또는 편집자의 오픈엑세스에 대한 지식과 인식정도를 조사하여 올바른 오픈엑세스의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신은자. (2010). 이공계 학술논문의 연구비 지원 및 오픈액세스 현황 분석: S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41(4): 1-21.

정경희. (2007). 비영리학술저작물의 저작권정책과 오픈액세스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4): 101-102.

정경희. (2011). 국내 오픈액세스 학술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373-391.

홍재현. (2008).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431-463.